

알코올중독자 자녀의 삶에 대한 역설적 대처

김 명 아(포천중문의과대학교 간호학부)

목 차

I. 서론	V. 결론 및 제언
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II. 연구결과	영문초록
IV. 논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알코올중독은 중독자 자신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다. Star(1989)가 지적했듯이 가족은 하나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한 구성원의 중독이 다른 구성원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알코올중독자의 가족들은 가족 체계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중독자의 행동에 자신의 행동을 적응시키게 된다. 즉 알코올중독자의 예측할 수 없는 음주, 폭력 행위 등에 반응하면서 점차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중독자의 행동에 따라 조정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공동의존(codependency)이라 한다(Whitfield, 1989).

그러므로 알코올중독자의 가족들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특히 알코올중독자의 자녀는 어린 시절부터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게 되며 부모의 학대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를 갖게 된다. Deckmon과 Down(1982)도 알코올중독자 자녀들이 사회적 고립감, 대인관계의 장

애, 심리적 발달의 억압, 부모에 대한 역할 기대의 좌절과 부모 동일시의 결여와 무시, 반사회적 행위나 자살 등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우리 나라의 알코올중독 평균 유병률은 26.77%(남궁기 등, 1989)이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알코올중독자 자녀의 수도 계속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데 Melcher(1997)가 자신의 연구에서 거의 천만 명이나 되는 알코올중독자가 그들의 가족인 3천만 명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 우리나라 알코올중독자 자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재령(1994)이 14-17세의 중학교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알코올중독자 자녀 선별검사를 한 결과 34.69%에 해당하는 학생이 알코올 문제가정 자녀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알코올중독자의 자녀는 상당한 숫자에 비해 지금까지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해왔다. 알코올중독자 자녀가 문제를 갖고 있다는 사회적인 인식도 없고 알코올중독자의 자녀로 낙인화되는 것이 두려워 드러내 놓고 도움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알코올중독자 자녀에 대한 연구도 별로 없다. 알코올중독자 자녀의 정신건강(이재령, 1994), 부정적 경험과 자존심 및 통제소재(이경래, 1994), 성격 유사

도 및 스트레스 정도(이지숙, 1990), 심리사회적 문제(이은정, 1998), 심리적 특성(유용언, 1998) 등과 치료적 접근을 위한 연구로 알코올중독자 자녀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효과를 평가한 연구 등(최승희, 1997 ; 장수미, 1992 ; 박재연, 1999) 이 90년대부터 연구되었는데 알코올중독자 자녀를 이해하고 적절한 중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중독자의 자녀가 기존에 알려진 대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대처를 사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질적연구방법인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알코올중독자의 자녀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 그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을 파악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알코올중독자의 자녀가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하여 어떠한 대처 방법을 사용하는지 그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알코올중독자 자녀가 삶에 있어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대처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기 질적연구방법의 하나인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알코올중독으로 진단 받은 사람의 자녀 또는 알코올중독자 자녀 선별검사(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에서 알코올중독자 자녀로 밝혀진 자료 만 16-18세의 청소년이다.

알코올중독자정 자녀 선별검사는 Jones(1981)가 알코올중독자인 부모와 살았거나 살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선별하고 조기 개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발한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

(CAST)를 김미례, 장환일, 김경빈(1995)이 한국어판으로 개발한 것으로 13점 이상일 때 알코올중독자 자녀로 선별될 수 있으며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계수가 .83이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를 선정할 때 알코올중독자의 자녀가 경험하는 현상을 충분히 탐색하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중인 알코올중독자를 대상으로 하여 담당의사와 알코올중독자, 그리고 그 가족에게 허락을 받아 면담을 진행하였고 또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알코올중독자 자녀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학교 선생님과 가족, 그리고 학생의 동의하에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또한 청소년 보호 시설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별하여 시설의 선생님과 가족, 청소년의 동의하에 면담을 진행하였다.

3. 자료수집 방법 및 기간

자료수집 및 분석은 2000년 12월부터 2001년 8월까지 9개월에 걸쳐서 수행되었고 자료 수집과 동시에 자료 분석이 이루어졌다. 녹음된 내용은 녹취록으로 작성하였으며 참여자와 만나는 현장에서 관찰된 것들은 이론적 메모로 기록되었다. 면담은 각 참여자마다 2-8회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학교 상담실, 참여자의 집, 거주시설, 음식점 등에서 이루어졌다. 면담시간은 5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고 개방적 질문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이루어졌고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으며 자료가 연구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참여자의 개인적 비밀은 절대로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대학원에서 질적연구방법론 과목을 2학기 수강하였으며 질적연구학회에 가입하여 매월 세미나에 참여하며 훈련을 받았고 정신과 병동의 임상 경험과 상담 훈련을 통해 면담 기술을 습득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의 타당도를 위해 질적간호연구의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4인과 알코올중독 전공인 정신과 의사 1인의 감수를 받았고 연구 결과를 참여자에게 확인하였다.

4. 자료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은 자료의 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졌고 분석방법은 Colaizzi(1978)가 제시한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분석단계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 참여자가 기술한 내용의 느낌을 얻기 위해 면담상황을 떠올리며 녹음된 내용을 반복하여 들었다. 동시에 필사한 내용을 반복해서 읽으며, 현상학적인 반성을 통해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밑줄을 그으면서 의미를 탐구하였다.
- 2) 각 기술로부터 알코올중독인 아버지와 사는 자녀의 경험과 관련된 의미 있는 문장을 추출하였다.
- 3) 각 의미 있는 문장을 한줄 한줄 자세히 읽으며 의미를 도출해내었다. 이때 구성된 의미가 원자료의 기술과 단절되지 않도록 주의하였으며 원자료를 다시 읽으면서 제시된 현상의 다양한 맥락에서 숨겨진 의미를 발견해 나타내었다.
- 4) 구성된 의미를 모아서 주제모음을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모든 대상자의 기술에 공통적인 주제들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 5) 위의 결과들을 통합하여 현상에 대한 철저한 기술을 도출하였다.
- 6) 현상에 대한 철저한 기술이 현상의 본질적 구조를 명확히 나타내도록 하였다.
- 7) 최종적 타당화 단계로 대상자에게 구성된 의미 기술이 타당한지 확인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현상학적인 반성

본 연구결과 '삶에 대한 역설적 대처'라는 주제에 대해 13개의 의미들이 분류되었다.

주제 : 삶에 대한 역설적 대처

- 1) 아버지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시도로 강박적 행위와 관계사고를 갖는다.
- 2) 불안과 긴장으로 인한 방어적 삶을 살아간다.
- 3) 편집적 사고로 인해 홀로됨을 두려워한다.
- 4) 만성적 긴장상태에 대한 부담으로 아버지가 술먹

는 것을 바라는 모순된 기대를 갖게 된다.

- 5) 평안한 삶을 원하나 이미 긴장된 생활에 익숙하게 되어 자극이 없는 생활에서는 지루함과 무료함을 느끼게 된다.
- 6) 사실을 재해석해서 맞추어 놓는 가장된 삶을 살아간다.
- 7) 외로움으로 인해 애정 욕구의 충족이 절박해져 타인에게 집착하게 된다.
- 8) 또래 집단과의 보상적 삶을 살아간다.
- 9) 반복되는 부정적 경험이 내재화되어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게 된다.
- 10) 불완전한 자아를 만회하기 위해 타인을 통제하려 한다.
- 11) 자신을 상처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부인하고 경계하게 된다.
- 12)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 원망하는 삶을 살아간다.
- 13) 부정적 자기 이미지를 보상받기 위해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게 된다.

각 의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아버지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시도로 강박적 행위와 관계사고를 갖는다.

알코올중독자의 자녀는 아버지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인해 삶이 불안정하게 되자 어떻게든 그 행동을 막아보려고 노력하게 된다. 징크스를 만들어 시간에 따라 시계를 차고 옷을 입고 피아노를 치는 등의 강박적 행위를 하기도 한다.

그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옷을 입으면 내가 맨지 아빠한테 많이 맞고 그러는 옷이 있어요.. 옛날에 징크스 너무 많았어요. 징크스가 한 백 가지는 되가지고요.. 딱.. 시계를 항상 차고 있다가 9시 되면 딱 빼고.. 이 옷은 입지 말고... 그게 어떻게 보면 위안을 딱 하다가.. 그런 거죠.. 우연이나 보기에는 너무.. 많은데요.. 술먹고 그럴 때요.. 딱 자리에 누웠는데 이렇게 누우면 아빠가 언뜻 많이 때리고 이렇게 하면 자는 게 딱 보이고.. 아빠가 한참 피아노 갖다가 딱 쳐보나 그러고 때리고 그럴 때요 꼭 항상 집에 7시까지 안아 타고.. 버스 타고 만약에 동네에 58분에 내렸으면 2분내

에 뛰어가서 피아노 뚜껑 열고 악보를 꺼내고 치는 시늉을 하고.. (♂, 여)

2) 불안과 긴장으로 인한 방어적 삶을 살아간다.

알코올중독자는 술 마시고 나면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녀는 항상 긴장하고 있게 된다. 아버지가 불시에 방에 들어오더라도 트집잡히지 않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게 된다.

다른 일 하면서도 영어 책은 항상 펴놓아. 그게 너무 가식 같고 싫은데 어쩔 수 없어요. 그때 성경책을 한 번 봤는데요.. 순사려 갔다가 제방에 들려 가지고 딱 보니까 제가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일후오라고 장혀 가지고는 보는 앞에서 성경책 찢고 교회안 가겠다고 각서 쓰라고 해서 쓰고 성경 같은 거는 티도 록 아빠 눈에 안 띄게 하죠.. 그리고 화장대가 문 앞에 있어 가지구요 바로 소리 날까봐 서랍도 못 열고 아빠도 또 뭐라 그러죠 화장장 하나구...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 여)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아버지가 술 마시지 않고 있다가도 늦게 들어오거나 연락이 안되거나 지방으로 출장 갔거나 하면 술 마시게 될까봐 긴장되기 시작한다.

늦게 오면 우선 의심이 가죠 전화 안하구요 딱 늦게 오거나요.. 출장 갈 때 있잖아요 지방으로 그럴 때 이제 좀 불안하죠.. 그러니까 언마양 싸우고 나서 아니면 이렇게 지방 출장 내려 갔을 때 거의 그랬어요 거의 그럴 때 좀 마시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데... 지방 내려가면 좀 편한 거 있잖아요 언마도 없고 그러니까 아빠도 동료들이랑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루 이틀 딱 그냥 일하고 볼 때도 있는데요 두세 달 있다가 먹을 때다 그러면 그런 거 있죠 이제 불안 하거... 있죠... 그 기분이 되면 긴장이... 그러니까 술을 먹든지 안 먹든지.... (♀, 남)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아버지의 눈에 띄게 되면 잔소리 듣고 꼬투리 잡혀서 혼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아버지를 피하게 되고 아버지가 계속 술 마시게 되어 사태

가 심각해지기 시작하면 가방도 싸놓고 밖으로 피할 준비를 하게 된다.

아빠가 일어나 있어도 자는 척 하구요.. 아빠가 만약에 같은 방에 있잖아요 그런 아빠가 같이 안아 있으면 1분도 안태서요 다른 방으로 들어가고... 그랬었거든요 아빠가 무슨 그지 새끼냐고 오면 피하냐고.. (♀, 여)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숨겨고 괜찮듯 싶으면 이러진 않는데 핸디 많이 때리고 이상하게 오는 같이 안좋다 싶으면 동생한테 말해주죠.. 가방 싸놓고 방 살짝 치워놓고 그러고 있거나 손톱도 깎아놓고 아빠가 말하기 전에 아빠가 장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딱 정리되어 있으면 자기도 할 말 없잖아요.. 좀 더 신나게 불행이 들어가면 깊이가 진전되면 동생한테 말을 하죠 야 너 진 조그말 거 쌓아놔라 만약에 대비해서 돈이랑 옷이랑 뭐 그밖에 세면도구랑 가방 조그말게 해서.. 언제 어디서 밖에서 생활력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하죠(♂, 여)

3) 편집적 사고로 인해 홀로됨을 두려워한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집에 혼자 있으면 누군가가 있는 것 같고 귀신이 방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무서움을 겪게 된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날벼락이 떨어질 것 같고 항상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불안해 하며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게 된다. 그래서 물통이나 식염수 통을 잠그고 또 잠그고 확인하는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집에 혼자 있고 이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언마양 아빠 다 일어나고..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다 늦게 들어오니까. 그런 거 때문에 되게 무서움이 많았어요. 그리고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에요.. 할머니.. 그 집에만 들어가면요.. 괜히 딱 할머니 있는 거 같고 딱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애가지고 불을 다 켜놓는 스타일이예요. 텔레비도 켜야 되고 라디오도 켜야 되고요 그애까지 쯤.. 양정이예요. 텔레비 틀어놓으면 누가 있는 거 같아요... 이제 언마가 딱 버릇을 들이는 거예요 문 탁 잠구요 밖에

잡그는 거 잡켜놓고 자버려요.. 그러면 못 나오잖아
 요!! 그니까 이제 인형을 양고 갔어요!! 문을 닫으면
 요.. 귀신이 있는 거 같아요 방에!! 뭔가 쉬쉬쉬 막
 그러는거 같구요.. 그대 갖고 이제 오디오를 틀어놓고
 자요! 그대가지고 이제 CD를 딱 틀어놓고 자면요.. 막
 보일러가요.. 이제.. 이렇게 보일러 커지면.. 보일러 딱
 켜 놓으면 푹푹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땀지
 귀신이 왔다갔다 하는 거 아니야? 막 그러구요. 괜히
 여기서 푹.. 저기서 푹.. 그러면요 제가 밖에는요! 그
 니가 괜히 막 눈뜨고 있게 되구요.. (8, 여)

4) 만성적 긴장상태에 대한 부담으로 아버지가 술먹
 는 것을 바라는 모순된 기대를 갖게 된다.

알코올중독자의 자녀는 아버지가 술을 마시지 않을
 때에도 언제 술 마시게 될지 몰라 불안해한다. 그 긴장
 상태가 견디기 힘들어 차라리 아버지가 술 마시는 것
 을 바라게 된다. 그리고 술 마시게 되면 오히려 편안해
 한다.

근데.. 그게 며칠 전에 바라게 됐거든요? 이렇게 아
 빠가 또 밖에서 술먹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같이 그까
 어차피 술먹는 방법이라도 같은 방법일지라도 하나는
 계속 안 먹고 집에서 쉬다가, 먹는 게 언제 먹는지 모
 르는 게 더 불안하지만 지금 이렇게 일주일씩 먹으면
 계속 먹은 거 아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하다니깐요..
 그래서 바랬거든요? 솔직히! 아 그랬으면 좋겠어. 차
 라리 그게 낫겠다. 언제 먹는지 모르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차라리 먹는 게.. 줘있다.. 먹더나구요 바깥 대
 로.. 훨씬 더 나아요... 같이 그런.. 술을 먹는 그런 거
 나도 이게 더 마음이 편해요! 그까 안 먹고 있다가 가
 께 야 한병 또 갖고와라! 한병 갖고 와라! 그게 더 불
 안하다니깐요... (8, 여)

알코올중독자의 자녀는 아버지가 술마시는 것에 익
 숙해져 술마시는 동안 오히려 자유롭게 다른 일을 하
 기도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빨리 술개는 것을 싫어하
 기도 한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아예 며칠씩 먹으면 아버는 아

빠대로 위해서 살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되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아빠가 멘정신이니가 더 싫죠! 그
 려 때가 너무 싫으니까 아예 지금처럼 사는 게... 그
 래서 너무 그런 나머지 빨리 아빠가 술개는게 아냐?
 하고 불안하죠. (8, 여)

5) 평안한 삶을 원하나 이미 긴장된 생활에 익숙하
 게 되어 자극이 없는 생활에서는 지루함과 무료
 함을 느끼게 된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아버지로 인해 항상 삶이 바쁘
 고 긴장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생활에 길들여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생활에서는 무료함을 느끼게
 되고 삶이 빨리 돌아갈 때 산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예전에도 이런 적 있었는데 예전에는 막 삶이 되게
 막 바빴어요.. 아빠가 술을 먹으면 또다시 그 일 때문에
 또다시 바빠지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놓다가도 아빠
 술마시고 아니면 시험보고 그러다보면 시간이 막 지나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계속 뭐 하라고 시키
 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 같으니
 까.. 좀 쉬다가 좀 정리 할거 있으면 정리 해버리고
 그러다 다시 일 생기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게.. 그러
 니가 좀 빨리빨리 돌아가고 그러면 좀 산다는 느낌 같
 은 거 있잖아요... (8, 남)

스스로 해이해진다고 느낄 때 아버지가 술 마시는
 것을 자신이 긴장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아
 버지가 술 마시는 고난이 와서 자신을 긴장시켜 주기를
 바라게 된다. 마음 속으로 술 마실 때가 되었는데
 하며 기다리기도 하고 스스로 마음을 잡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어 아버지로부터 체제를 받기 원하는 자신의 모
 습을 보며 미친 것 같고 행복하니까 복에 겨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한번씩 저도 모르게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요.. 음. 뭐지? 좀 공부나 뭐 그런 거 해이해하고. 너무
 꾸미는 거에만 연연해하고.. 미레를 계속 뒤지 않고..
 막 그럴 때... 그럴 때 만약 아빠가 술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불행이 시작되면 아..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

님이 나한테 또 긴장.. 그러지 말라고 경고의 뜻으로.. 이렇게 하는 것 일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구요. 어떨 때는 제 자신이 위해서 아빠 술 한번 먹었으면 그까.. 때리거나 집안 상헌 부수지 않는 쪽에서 숨이요. 그까 아빠 혼자.. 자기가 먹고 견딜 수 있을 만큼에 고난... 근데.. 그면.. 진짜.. 뭐지.. 술 먹으면 막약에 아빠가.. 물론 아빠가 때리는 걸 원하지는 않죠. 근데 원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언마양 나탄서 나타있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속에 그렇게 해도 막상 되면? 흐.. 뜨끔하죠..

저도 좀 싸이코 같은 게요 저도 제 자신이 좀 폭어졌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한번씩 타서 나를 긴장 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게 좀 싸이코 같아요.. 그러니까 뭐... 멧내고 늦게까지 돌아다니고 뭐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을 좀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거 위해서 아빠가 한번쯤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속에서 그대렸으면 좋겠다. 그런게 아니라 욕 때가 된거 같은데.. 그 기다리는게 손꼽아 기다리는게 아니구요.... 한번쯤 이 시점에서 이러면 내가 손톱 기르고.. 이제 그러지도 않을텐데..

제 자신이 이제 공부하면서 막 짊어야지 하면서도요 한편은 그런 자유가 좋으니까요 아빠가 술먹구 내버려 두면 그냥 냅두구 하고 언마양 나가서 사먹고 돌아다니고.. 저도 집시 그런 끼가 있거든요. 방랑하고... 자유롭게.. 집에서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불행 때는 그런 행복을 모르죠 안그대요? 불행 할 때는 불행 안하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겨운 거죠.. 겨우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죠 안 그런게 정상인데.. (♂, 여)

6) 사실을 재해석해서 맞추어 놓는 가장된 삶을 살 아간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아버지가 앞에서는 잘해주고 뒤에서는 험담하는 것을 들으며 아버지를 믿지 말고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또한 사람들을 믿었다가 배신당한 경험이 많아 다른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고 진의를 파악하려 한다.

제가 막 방바닥에서 한장대에 앉아서 할 수 없잖아 요 방바닥에서 널려 놓고 이것 저것 색도 망들고 그

려고 있었는데 너 뭐하니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한다고.. 그 때 아빠 술먹고 별로 그런 거 아니고 기분이 되게 좋아 보였길래 속직히 말했어요 그냥 이거 하고 있다 구 존 있다 공부할거냐구 그랬거든은 그랬더니 응 그 래 알았어 아빠가 한장품 더 사줄까 그렇게 하더냐구 요 어 저럴 때가 있었네 존 내키지 않아도 아빠가 의 심은 됐지만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나중에 언 마한테는 그런 말을 했나타요 공부는 안하고 한장만 하는가보다고 언마가 조심하라고 아빠가 그런 말 했다 고 그래서 지금 한장품 진짜 간단한 것 그런 것만 빼 고는 온갖 새거나 그런 거는 다 떼는데다 숨겨 놓고 갈 달한 것만 하고 다닌다니가요.(♂, 여)

사람을 못 믿어요 알 믿어요. 되게 상처가 많다니깐 요. 배신 당한 게 한두번이 아니거든요. (♂, 여)

사람들은 인간들은 필요할 때는 배신을 안하고 막 되게 아부하는 척 하면서 되게 잘 해주는데 잘 멀던 사람도. 그치말은 자기가 그 필요 없으면은 버리는 거 죠. 배신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나를 좋아한다고..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아무튼 나에게 저 사람이 나 진짜로 좋아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 여)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자신을 학대하던 아버지가 잘 해줄 때 좋아하기 보다는 저의를 의심하게 된다. 아버지가 또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 안에서 여러 생각이 떠오르게 된다.

어.. 옛날에는 이럴 땐 언제고.. 이제 타서 또 이런 다고.. 막 아빠 이기주의자 아니야? 뭐 성격이 두 개 야? 막 이러면서요.. 괜히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 들고 요!! 또 뒤에 가서 또.. 하.. 뭐 컷소리야.. 아빠가 잘 해주려고 하는 거 그냥 그대로 받기만 하면 되지.. 뭐 또 혼자 그러냐고... 혼자 막 그러니까 벼내 별 생각을 다해요. 혼자서요.. 여러 명의 생각을 다해요.(♂, 여)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친구를 의심하고 트집을 잡아 싸우게 된다. 또한 누군가가 자신에게 잘해주면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제가 가꾼 그런 생각 있어요.. 그걸 때가 있거든요! 자주 싸워요. 남자친구랑 그.. 싸움을 생각해 보면은 요 다 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제가 트립잡고 제가 의심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누가 이렇게 잘 해주면은

뭔가 다른 마음이 있어서 잘 해주는 거 같아 보이고.
근데 갈수록 그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은은 언마가 잘 해주어도.. 언마가 분명히 내가 뭐 잘
못을 했는데 그거를 나중에는 트집을 잡으려고 잘 해
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B, 여)

7) 외로움으로 인해 애정 욕구의 충족이 절박해져
타인에게 집착하게 된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부모로부터 충분히 애정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살아간다. 그래서 자신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하지만 크면서 답게
되자 실망하게 된다. 또 부모와 대화가 없기 때문에 혼
잣말을 많이 하게 된다.

옛날에는.. 옛날에는 진짜 아.. 우리엄마 어디에 있
을까? 우리엄마는 저 산너머에 있는 걸까 하면서.. 옛
날에 철었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B, 여)

혹시.. 가짜 아빠가 아냐가 뭐 그런 생각도 듣고.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맞아요. 그냥 닮구
요.. 옛날에는 너무 그대가지구요.. 이건 분명 이걸
아니다. 차라니 티게 좋은 아빠가 있어 가지고 분명히
우익 데리러 볼 것이다. 언젠진짜인데 아빠는 아니다.
아니면 혹은 언마 아빠도 다 아니고 그냥 언마 아빠가
우익 데려다 키우고 더 좋은 부모가 있을 것이다 했는
데 솔직히 크면서 답답해요. 그래서 아닌걸 알게됐죠.
희망이 없어졌어요! (A, 여)

언마님은 많. 정말 안해요.. 아킴에 다녀오겠습니다
다. 인사하고 다녀왔습니다. 하고 끝이에요.. 평상시
에 얘기는 그냥 안해요.. 그냥 얘기 하고 싶을 때요?
그냥 혼자서 생각할 때도 있고요... 혼자서 말 안해요.
그거하고.. 친구들하고 얘기 할 때도 있고.. 가족하고
는 별로 얘기 안해요.. 혼자서 그냥 말하기도 하고
집에서.. 그냥 허공 쳐다보면서 얘기할 때도 있고.
근데 아빠는 슬쩍어도 별로 말 안하시구요 그냥 오
로지 자기 얘기만... (B, 여)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자신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
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에게도 부모처럼 하
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또 좋아하는 친구가 있

는데 감정 표현이 서투르고 잘해주기 보다는 오히려 친
구를 괴롭히게 된다. 또 자신이 맞고 자랐기 때문에 나
중에 자식을 낳으면 무조건 때려 보고 싶다고 한다.

만약에 언마가 아이를 키우면 애가 배고플 때 젖을 곧바
로 주면 애가 딱 커서 인내심이 없어지고 없고 딱 쫓..
창다가 주면 애가 쫓 그걸 기다리는 그걸 어렸을 때부
터 인성이 발달 된대요.. 응석받이로만 키우진 않겠
는 그런 거죠. 그거 원하는 거라면은 애들이 자기도
모르게 사고방식이 아 내가 원하면 다 언마가 다 되어
있구나.. (A, 여)

저는요 내 뒤에 친구를 티게 좋아해요, 그 친구를!
근데 제가요 감정 표현이 서투려요. 티게 좋아하는데
자꾸 개를 때리게 되고 못되게 굴어요.. 때리는 정도
가 아니에요! 딱 개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
거든요. 그대가지고 개가 하루종일 나 때문에 맨날 딱..
속상해해요.. 그러니까 딱 때리는 거 있죠? 그래서 내
가 개를요 책상에 뉘혀놓고 딱 쏘 못쉬게 했더니 울었
어요.. 아유.. 너무 재웠어.. (B, 여)

선생님.. 나.. 자식.. 내가 자식을 왜 키우려고 했
는지 아세요? 때려려고.. 잘못하면 딱.. 하면서 때리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자식이 잘못 안해도... 나의 자
식이.. 만약 편하면 무조건 때려뭉쳐다!! 그렇지
어요... 그랬어요.. 또 선생님 티고 싶어했던 것도 그
였어요. 애들을 때리고 싶어서.. (B, 여)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친한 사냥이나 물건에 지나친
애착을 갖게 되어 집착으로 힘들어 한다.

근데요 뭐가 있으면 딱 집착하게 되요. 아 무슨요
제가 꼭 레즈같이요. 제일 친한 친구가 딱 애들하고 놀
면요 딱 괜히 딱 한가 나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요 사
랑에서 집착으로 변하는 거예요.. 너무 집착해요. 물건 하
나하나두요 딱..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B, 여)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자신이 집착하기도 하지만 다
른 사람의 집착 대상이 되기도 한다. 상대방이 자신을
소유하는 것을 불편해 하지만 애정이 절박하기 때문에
계속 만나게 된다.

애들 딸로는 개가 전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는데요. 저
음.. 레즈비언이라고... 조심하다고.. 그럴 정도로..

개가.. 저를 티게 아껴요. 아끼는데 딱 제가 딱 개가 짝투신이 대개 심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딱 애하고 노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자기하고만 고면을 턱어차야 되고 자기하고만 얘기해야되고 고면같은거 있으면 턱어놓아야 되고 개는 또 자기 이리에는 없어야 되고 그러죠.. (8, 여)

8) 또래 집단과의 보상적 삶을 살아간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부모에게서 애정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또래인 친구들로부터 애정을 얻으려 한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들과 서로 의지하고 지지하게 된다.

친구는 티게 좋은 친구들 이에요!! 기뻐요 딱.. 그거 때문에 또 그것도 감사하고.. 나름 다 아껴주거든요.. 애들이! 내가 딱 빠져있으면 딱 다 풀어주고 속상하면은 옆에서 다 해주고.. 그런 친구들 좋죠!! 아주 좋죠! 내가 개네들이 절 필요로 할 때 힘들어하거나 그러면 제가 옆에서 당내주는 그런 것도 좋고! 다 좋아요 (8, 여)

교외친구.. 2학년.. 같은 또래 아빠가 다.. 그런 아빠예요.. 그래도 동병상련이라고.. 원래 초록은 동생이고 가재는 개편이라고 꼭 그런 친구가 많은 거 같아요 (8, 여)

우리는 힘들면요 거의 친구들이 풀어줘요.. 그냥 우선 서로 힘들면은 서로.. 우리는 힘들면은 우리가 서로 도왔어요.. (8, 남)

아.. 친구들한테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여태까지.. 친구들이 하루라도 없으면 난 죽어요. 의지하고 살았는데요 (8, 여)

목등으면 혼자서 앓을 때도 있고요.. 생각하면서.. 공공앓어요.. 앓다가 정말 폭발하면 애들한테 애길 해요. 애들한테, 다 들어주고.... 그냥 도움이 많이 되는 것도 있어요.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서.. 얘기는 한겨번에 꺼워서 얘기해요. 그 동안에 있었던 얘기 다 모아 가지고 얘기하고. 그래요.. 얘기하면 그게 풀어져요 (8, 여)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자신과는 다른 환경에서 성장

한 친구에게서는 위로와 지지를 얻는다. 부모에게 받지 못한 애정을 충족한다.

그냥 개냥 있으면은 많이 편해요.. 개네 집안어요. 우리집안하고 넌 반대예요.. 이렇게 가족이라고 그러는게 딱 특이 잤었어요.. 저는 개한테 그런 것을 이제 얻을려고 한 거죠!! 그런 것을! 그니까 우리 집에 없는 그런 것을 개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한거죠. 저를 많이 이해를 해 줘요!! 딱 기분을 맞춰줘요! (8, 여)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또래 집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화나는 일이 있어도 참고 솔직한 말을 하지 않으며 친구로부터 소외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애가 나한테 애가 나 또 목했다고요 그러면은 맨날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라고 그러면은 또 시라하라고 다시 또 친해지고요... 근데.. 그냥 그렇다고 하는거는 그냥 다 받아줘요.. (8, 남)

제가 싫어하는 애들한테 그거 왜 그러니? 너 정말 이러면 안되는거야..! 뭐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싶긴 하지만 안되죠! 못해요. 그런 거... 뭐.. 왜 제가 할 줄 알았으면은 그런 거 옛날에 하고 나서 우리학교의 딱 램타가 됐겠죠.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사람이란 건 자기가 할 말 다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참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8, 여)

9) 반복되는 부정적 경험이 내재화되어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게 된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자신에게도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긴장하게 된다. 또한 항상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친구들이 싸웠을 때 그때 긴장되죠 지나가다 뺏긴 앓을까.. 지나가다 그러니까 그때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삶의 한순간에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딱 누군가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보요.. 바로 앞에서.. 그런 그때 나도 그런 거 당하지 않을까.. 그런 그때.. 한순간에 또 긴장감을 느끼고 또 없어지고... (8, 남)

근데 이웃집에서 막.. 싸우고. 막 그런 소리 나면
은.. 막 께판놓고 막 그러는거 들으면 막.. 기본이 뭐
나 그렇지 모르겠어요! 그까 그 집이 그러는데 우리는
안 그러니까 약간 안도감은 들면서.. 우리도 언젠간
그렇지 모른다는 불안감이라.. (♂, 여)

그니까 막.. 하나님 나쁜 짓하면 지옥에 보내신다고
하잖아요 천국에 안가구요.. 하나님어.. 그러면은 다
혹시 하나님이 다 똑같이 나쁜 짓을 한번씩 다 했는
데.. 용서가면 내말 혹시 지옥으로 보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나한테만 나쁜 일이 생길 것 같
아요... 막.. 괜히 막.. 나쁜 생각만 들고.. 좋은 생각
을 그니까 거의 해보지 못한 거 같아요.. 근 2년간
고등학교 들어가서요.. 그니까 막 무서워요!! 괜히 나
만 혼자 이런 벌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나.. (♂, 여)

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무서워
요!! 내 맘대로 안되면 어떻게 해요? 나는 난 그걸 하
고 싶은데.. 사람이라는 게 방해물이 있잖아요. 가는
길마다!! 방해물... 어쩌다가 내가 돈을 들고 가는데
그 돈이.. 어떻게 사라지는 거.. 사라지거나.. 그런
거... 뜻밖의 그런 불행같은거 있잖아요. 그게 무서워
요(♂, 여)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현재의 삶이 지겹기 때문에 빨
리 휴거가 되기를 바란다. 희망은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나도 빨리 휴거가 되가지고 빨리 그냥.. 지긋지긋
해요.. 이제.. 희망.. 희망이란 건 사냥을 더 리듬게 만
드는 거예요.. 그냥 바빠요.. 오늘 죽을 날이에요.. 근
데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희망이란 게 오면은 희망을 붙잡고 모
든 것을 묻고 놓여지잖아요.. 그까 저번에 무슨 책을
봤는데 희망이란 건 신들이 준.. 제일 무서운 저주의
선물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말이대!! 라고
생각도 했죠.. 왜냐면은 진짜 희망이란 게 없으면 말
약 그냥 그 사람들 다 포기하고 그냥 살 수 있지만 희
망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 내일을 보면 산다고 그러지
만.. 그니까 희망이 있는 것이요.. 막 계속 그걸 묻고
놓여지면서 안 되는 일도 계속 그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 여)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불행을 겪
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있어도 분리된 느낌이
들고 자신의 미래는 과거처럼 계속 부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며 자신도 모르게 비극을 원하게 되고 때
로 자신이 병에 걸리거나 성폭행 당했다면 좋겠다는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그러는 자신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며 정신병이라도 걸린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근데 그런... 뭐라고 하지? 어렸을 때 너무 많이
그걸 겪었기 때문에 좀 생각하는 거라든지 그런게 남
들하고 좀 다르겠조..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도 우울
해지고 난 역시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자라왔으니까
미래도 안 좋을 거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다른 애들하
고 보다 정상적으로 자란 거 같지도 않고... 같이 있
어도 또 개네들하고 좀 분류된 느낌이 들어요... 같이
놀다가도 딱 묶은 같이 있는데 마음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도 지나치게 한목하게 나오면 오히려 막 짜증
나고.. 좀 더 어두운 그까 소설에서도 비극을 더 좋아
해요. 밝게 끝나는 게 좀 맘에 안들더라고요.. 인생이
뭔지.. 물론 즐겁게 좋게..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아
무래도 많은 부분이 비극이니까.. 비극을 원하는.. 내
가 언제 한번 성폭행 당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
고.. 또 안 그러면.. 나 이번에 한.. 백혈병 걸려버렸
으면 좋겠는데... 바래지더라고요. 그니까요.. 저도 모
르게요.. 그걸 정말 원하진 않거든요? 원하진 않는데
아빠가 이제.. 숨먹고 또 불행이 오면 아.. 아빠가 언젠
까 때린다. 때리겠지? 때렸으면 좋겠다.. 막.. 정말 원
하지도 않는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막.. 아니라
구.. 막.. 기도도 드리면서 하나님한테 일어나지 않게
해 달라고. 그러면서도 막 혼란스러웠어요. 후..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하는.. 그래서 정말 막..
정신병 걸린 건 아니니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
게 보면은 제 자신이 불쌍하게도 생각이 들고.. (♂, 여)

10) 불완전한 자아를 만회하기 위해 타인을 통제하
려 한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아버지에 의해 자신의 삶을 통제 당하며 살아서 자아의 경계가 불안전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쉽게 영향받고 특히 아버지가 기쁘면 자신도 기쁘고 아버지가 슬프면 자신도 슬프게 되며 아버지가 술 마시면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게 되고 아버지가 다시 좋아지면 자신도 괜찮아지기 때문에 아버지의 술 마시는 행동을 조절하려고 노력한다.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생님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다 생각하는 거 같아요. (B, 여)

속상하죠.. 아버지는 기쁘면은 딱 기쁘면은 나도 기쁘죠, 아버지가 슬프면은 딱 웁거나 그런 거. 그런 저도 웁고 웁죠, 속상하니까.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그리고 내가 웁고 싶을 때는 저는 혼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무 앞에서나 웁지 않아요.(B, 여)

마셨을 때 한나고 그리고 하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마셨을 때...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도 해야 될 건 또 해야죠 ..해야 되는 건 또 해요..술 먹을 때는 거의 아무 생각 없죠... 싫고.... 그러다가 또 아빠가 괜찮아지시면 다 없어지니까 끝나요 그때 감정들이....그때 다 없어져요... 다시 좋아지죠.(B, 남)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주위의 영향을 잘 받고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옆에있는 사람을 통제하려 한다.

애들이 옆에서 친구들이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런게 되게 중요한 거 더러구요 딱..개가 하는 말 큰 저도 하게 돼요. 개가 공부하면 저도 공부하게 되고 근데 또 반전에. 또.. 그냥 무작정 노는 애들하고 또 있으면요 그냥 공부하기 귀찮은 거예요 또 그러면 또 늦게 되고 같이..

그게 되게 중요하더러구요 옆에서 친구가 어떻게 해주냐는게 되게 중요하더러구요.. 근데 딱 저는 그런게 있어요. 어쩔때는요 아 귀찮아 애양 늦지! 뭐 그러다가두요 가끔요 딱 마음이 내킬 때가 있어요!! 공부해야돼 딱 그럴 때가! 저는요 마음먹었을 때 바로 무조건 해야되거든요? 그러면 개양 같이 있다가요 나쁜 애양 같이 있다가요 나 공부해야 돼 딱 그러면요 애들

공부시켜야 돼요. 무조건!! 모르겠어요.. 그까 야.. 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안해? 그러면서 그러니까 개가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요 아 공부를 해야 대략을 가지! 그러면서 꼭 같이 시켜야돼요. (B, 여)

11) 자신을 상처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부인하고 경계하게 된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지속적인 학대로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남아있게 되어 감정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게 된다.

뭐라고 할까.. 종로에 뺨맞고 뭐? 남대문에서 뭐... 한푼이 한다.. 뭐 이런 거요 뭐 엄마가 뭐 영반은게 있으면은요 아빠한테.. 그거가지고 딱 나한테 딱 한푼이 해요.. 어떤 식으로 하나면 내가 딱 뺨맞게 그런 것이고 있는데 딱 아무 말 안하다가 아빠랑 딱 싸우니까... 너! 북 안꺼? 너 자꾸 그러면은 죽어버린다. 뭐 아무튼 딱 죽어버린다는게 아니라 되게 나쁜 말을 했어요. 뭐.. 아가리 뭐 이렇게 뺨친다고 딱 그러면서 아무튼 딱 되게 가슴에 딱 이렇게 비수 꽂는 말을 해 가지고 기분 준 내뺐어요. 섭섭한 거예요.. 그런 일 몇 백번도 더 많아요. 엄마는요... 다른 데에 가 가지고 영반은거 나한테 풀고 그게 너무 싫어요.(B, 여)

너무 쉽게 상처받아요.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는 말 한마디가요 너무 크게 돼요. 혼자 속에서!! (B, 여)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감정적으로 속상한 일이 있으면 항상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서 자신이 상처받는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 한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 대해 좋게만 생각하다 보니 어느새 자신의 진실한 감정이 뭔지 모르게 된다.

그니까 제가 딱 얘기하는 게요 천사의 마음이 들어 가지고 속에 있는 친구가 천사구 내가 약하러구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딱 생각을 하다가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반 쪼개져 가지고.. 텅이 딱 얘기를 해요. 속에서! 항상 천사가 이기죠.. 됐어.. 이런 거 가지고 그러냐!(B, 여)

내 감정을 모르겠잖아요.. 내가 울면서도 딱 웃을 때가 있어요. 언덕 위에 올라가서 올라가 미친 듯이 웃었어요.. 그냥 미친 것 같아요.. 몰라요(8, 여)

12)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 원망하는 삶을 살아간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부모로부터 인격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고 확대당하면서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수치스럽고 내가 사람이 아닌 것 같고 김승한테 하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 듣는 기분.. 내가 사람 아닌 거 같아요 그냥 내가 말 못하는 김승.. 대들면 안티니까 말도 못하고 맞고만 있어야 되고 가 말 있어야 돼요(8, 여)

티게 웃겨요. 뭐가 웃긴지 아세요? 언다는 내가 고 무릎 인간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맨날 나한테는 딱 이래요! 이제 다 컸잖아! 그대요.. 그런데 내가 커피 마시면 어이구.. 아직 어린애면서! 그대요! 내가 뭐 고무줄 인간 이에요? 왜 줄었다 늘었다 해요?(8, 여)

제 성격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겁안일 생각 하다 보면요.. 겁안일 다 생각했을 때 더 열이 받기 시작해요. 흥분하고 딱.. 진짜 왜 태어났을까? 그런.. 정말 말도 안되는 상상을 하면서... 내가 태어난 이유는 그냥 한번 딱 살고.. 몇 번 안 살고.. 그냥 한번 살고 죽을라고... 죽기 위해 그냥.. 모르겠어요.. 이유가 뭔지 많이 안되는데요... 그냥 아빠 때문에도 많이 그렇고 친구문제도 그렇고(8, 여)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남들보다 못났다고 여기고 자책하게 된다.

애들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애는 다른 건 못해도 영어같은 거 잘하는 애도 있고 아니면 성격 나빠도 춤 같은 거 잘 추는 애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보통 한가지라도 다른 거 못해도 잘해 가지고 딱 하면 되는데 저는 그런게 없는 것 같아요(8, 남)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에 딱.. 하.. 섭섭하달 말도 못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작아 보이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하구요.. 누구 앞에 가던지요... 쟀 나보다 잘났고 쟀 나보다도 예쁘고. 이런 생각하면은 그냥 제가 괜히 다 작아 보여요.. 근데 그게 제 문제예요!! 혼자 자책하고 있어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예요.. 나쁜 건 다 내가 뒤집어써주고요 혼자 자책하고 있어요! 자신은요..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맨날! 난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고... 왜 이걸 못할까.. 딱 그러고 혼자 자책하게 되구요(8, 여)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자신이 태어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상황에 대해 비책감을 갖게 된다.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차라리 나 같은 거 낳지들 말지.. 내가 생각하기에도 나는 나쁜 애 같기도 하고 맨날 언마 속상하게도 하고 하나한테도 리송한 게 너무 많고!! 공부 같은 거요. 공부도 못하고.. 물론 언마가 바라는 대로 다 해주고 싶은데 아휴... 맨날 뒤떨어지고..(8, 여)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되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한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별일 아닌 일로 생색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딱 자기가 당당한 애들은요 말해요. 나 이런 거 싫고 내 생각은 이렇다고! 그런데 저는요 잘 말 못하는 편이에요.. 아 재는 나보다 잘났으니까 저렇게 말 할 수가 있구나... 난 재보다 못났으니까 그런 말도 못하겠고... 혼자 계속 생각한 적 있었어요. 나는 왜 맨날 이런 생각을 하나? 왜 말을 못하나? 킁득다는 말도 잘 안하는 편이에요.. 애들한테..(8, 여)

저는요 그냥 제가 딱 상처입은거 표현을 하고 괜히 딱 킁득해 있고 그러면은 그게 또 딱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잖아요. 재는 맨날.. 저렇게 왜 저렇게 맨날.. 자기가 킁 상처 입은 거 갔다가.. 그런 것 갔다가 딱 저렇게 생색을 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8, 여)

(13) 부정적 자기 이미지를 보상받기 위해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게 된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필요할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친구가 어려운 부탁을 해도 거절을 하지 못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갈망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리다가 자신이 남들의 요구만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될까봐 걱정하기도 한다.

제가 정말 급해 가지고요! 1000원이 꼭 필요한데 1000원이 없어요.. 네가 좀 빌려줘 이 말도 못하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미안해요.. 그냥 뭐.. 그냥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내일 사지 뭐.. 꼭 필요한데 두요 내일 사지 뭐.. 그냥.

나도 그냥 꼭 샅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려줘요! 그냥 싫어 이 말을 못하겠어요.. 그 말을 하면요 퇴게 미안해요. 개가요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그냥 그리고 내비뒀음 거절을 잘 못하는 거예요. 스타일이 그래요. 어려운 부탁이라두음 거절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예요.. 애들이요 딱 이런 것 좀 해줘 그러면요 싫어 이 말을 못하겠어요. 나도 이렇게 바빠서 못하겠어. 이 말을 못하겠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내가 안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도 들구요 그냥 아.. 내가 왜 굳이 저걸 안해주냐. 나도 할 일이 없고 내가 해놓고 저걸 해 줄 수도 있는 건데.. 뭐..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구요... 그리고 딱상 그래 해 줘고 하고 나면요 하 내가 왜 그때 싫다는 말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구요 혼자 나 중에 또 이리다가 사람들 기본 맞춰주는 거.. 뭐 이런 거말 잘하는 거 아니야? 딱 .. 딱 이런 생각도 들고.. 딱 저런 생각도 들고.. (B, 여)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자신이 하기 싫더라도 주위의 기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기도 한다. 또 지나친 기대대로 부담스러워 하며 칭찬 받으면 계속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마는 맨날 뭐 나 하나 때문에 어렸을 때 이혼도 안하고 지금도 살아온 건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하기는 하는데 싫은데 하게 되는 거죠.. 주위의 기

대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B, 남)

어른들이 대견하거나 착하다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그런 말하면은.. 교회 전도사님들이 다 저한테 대견하다고.. 다 착하다고 그러는데 안 그런 거 같아요 나도 예배도 드리기도 싫고 반주자도 하기 싫고..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싶고.. 근데 나 때문에 다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요... 인원도 퇴게 적어요. 그리고 피아노치침 좋아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해 주지 않으면 안돼요 (B, 여)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잘난 척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더욱 자신의 실제 모습과 거리가 있게 된다.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오히려 친구들의 상대자가 되어주기도 하는 등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한다.

선생님! 제가 옛날에 람따를 당했었던요!! 초등학교 때하고 중학교 때요 왜냐면 제가 성격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잘난 척을 했었던요... 지금도 잘난 척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퇴게 잘난 척을 퇴게 많이 했는데.. 옛날에는 정말 너무 장난아니었어요(B, 여)

저를 보면요 애들이요 우리 집에 문제가 없을 것 같대요. 제가 하도 딱 경치니까 학교에서요.. 아주 잘사는 줄 알아요.. 그냥 그런 게 싫어요 남한테요.. 딱 제 사생활 얘기하고 그러는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게.. 그러고말 싫어요. 그냥 저는요 이유 없이 짜증내고 그런 거는 별로 안 하거든요? 좋게 좋게 사는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하고 살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나쁜 건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저가 딱 활발하고 말 잘하고.. 딱 그러니까요 다 상담을 하거든요(B, 여)

2. 현상학적 글쓰기(Exhaustive Description of Results)

알코올중독자 자녀의 삶에 대한 역설적 대처에 대한 현상학적 글쓰기는 다음과 같다.

알코올중독자의 자녀는 아버지의 예측할 수 없는 행위로 인해 혼란스러운 삶에서 나름대로의 대처 방법을

생각해 내게 된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아버지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자신이 통제하기 위해 효과가 있다고 여겨지는 행동의 목록을 작성하여 강박적 행위를 하게 된다. 또 전후 상황을 연관지어 관계사고를 갖게 되고 일어난 상황에 대해 스스로 해석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로 인해 자녀의 삶은 더욱 속박되게 된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아버지의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늘 불안하고 긴장하게 된다. 그래서 스스로 대비하는데 다른 일을 하면서도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책을 펴놓는다든지 집에서 건디기 힘들어질 때 밖으로 피할 수 있도록 가방을 싸놓는 등 준비를 하는 방어적인 삶을 살아간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혼자 있을 때 귀신이 나올 것 같고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편집적 사고로 늘 무서워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됨을 두려워하고 스스로 안심시키고자 노력하게 된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아버지가 술 마시고 있을 때도 피롭지만 술을 마시지 않고 있는 기간에도 언제 술 마시게 될지 몰라 긴장하게 된다. 늘 긴장하며 살다 보니 그러한 상태가 건디기 힘들어져 차라리 아버지가 술을 마시게 되면 일단은 긴장이 감소되는 것 같고 또 술 마시는 동안 스스로 건디는 방법을 익혔기 때문에 때로는 아버지가 술 먹는 것을 바라는 모순된 기대를 갖게 된다.

또한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불안정한 삶 때문에 늘 평안한 삶을 바라게 되지만 막상 아무 일도 없는 상황이 되면 지루해하고 무료함을 느끼게 된다. 이미 아버지로 인해 항상 삶이 바쁘게 돌아가고 긴장된 생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아버지가 술 마시고 그로 인해 자신이 긴장되기를 바라기도 한다. 특히 스스로 나태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될 때 아버지가 자신을 잡아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며 자신이 미친 것은 아닌지 혼란스러워하기도 한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학대했다 잘해줬다 하며 항상 태도가 돌변하는 아버지로 인해 사람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되어 모든 상황에서 저의를 파악하려 하고 사실에 대해서도 스스로 다른 해석을 하는 가장된 삶을 살아간다.

또한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부모로부터 충분히 애정을 받지 못해 외롭게 살아간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기도 어렵고 상대방을 자신의 부모가 자신에게 하듯이 괴롭히기도 한다. 또한 자신에게 애정을 주는 대상이 나타나면 집착하고 그 대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소유하려 하기 때문에 스스로 힘들게 된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부모에게서 받지 못한 애정을 또래의 친구들로부터 얻으려 한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며 서로 위로해주고 지지해주는 보상적 삶을 살아간다. 또는 자신과는 다른 환경에서 자란 친구로부터 부모 대신 사랑을 받으려고도 하고 알코올중독자 자녀에게는 이러한 친구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된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자신의 삶에서 주로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은 불안감을 갖고 살아간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며 어차피 자신의 미래는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빨리 죽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기도 한다. 그리고 항상 삶에서 부정적 경험만 하게 되다 보니 스스로도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상상을 하기도 한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아버지에 의해 자신의 삶을 통제 당하며 살아와서 자아의 경계가 불완전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쉽게 영향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한다. 아버지의 술 마시는 행동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며 자신이 공부하기 위해 친구도 공부하도록 하고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안 드러내기도 한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아버지가 주는 지속적인 학대로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남아있게 되어 감정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게 된다. 그래서 자신이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도록 조심하게 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말만 듣기 위해 솔직하게 감정 표현을 안하게 된다. 또한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감정적으로 속상한 일이 있으면 항상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서 자신이 상처받는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 하기 때문에 자신의 진실한 감정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게 된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부모로부터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다 보니 자신이 태어난 것에 대해 원망하기도 한다. 이렇게 자신의 존재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다보니 자신이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일에 자책하는 등 부적절한 죄책감을 갖게 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도 주저하게 된다.

또한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려운 부탁도 거절하기 어려워하며 자신은 필요한 일이 있어도 부탁을 하지 못한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항상 남들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싫어하는 일도 하게 되고 자신보다는 먼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한 자신의 성향 때문에 주위의 칭찬이나 기대를 부담스러워하기도 한다.

IV. 논 의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아버지의 예측할 수 없는 행위로 만성적 불안과 긴장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신체적, 언어적 학대로 내적인 상처가 남게 되고 이로 인해 우울과 예민함 등의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이재령(1994)의 알코올중독자 자녀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를 보면 알코올중독자 자녀가 일반가정의 자녀보다 우울, 불안, 공포 등이 높고 대인 예민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이지숙(1990)도 알코올중독자 자녀에게 긴장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Haines(1998)는 알코올중독자 자녀가 내적 상처로 인해 장기간의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불안과 우울 등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술 마시는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강박적 행위를 하게 되고 또한 술 마시는 것을 예측해서 대비하고자 술 마시는 행동과 관련 있는 사건을 나름대로 해석하는 등 나름대로의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동의존의 특성인 자신의 의지로 상대방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생각(Cermak, 1986)을 하는 것과 일치하며 결국 자신보다는 아버지에게 집중하고 아버지의 행동에 따라 반응하는 생활양식을 지니게 되어 결국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중독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아버지가 술을 마시지 않

는 기간에도 언제 아버지가 술을 마시게 될지 몰라 항상 긴장하고 있으며 이 기간이 술 마시는 기간보다 더욱 견디기 힘든 것으로 나타나 차라리 아버지의 술 마시는 것을 바라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생활에 익숙해져 나름대로의 생활양식으로 자리잡게 되어 아버지가 술 마시고 술로 인한 행동을 하는 것을 견디어 내고 아버지를 입원시킨다거나 아버지를 돌보는 일에서 삶의 의미와 자신의 존재를 느끼게 되어 별다른 사건이 없는 일상생활을 지루하게 여겨 안정된 삶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아버지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과 자녀에 대한 비인격적 태도로 인해 아버지를 불신하게 되어 이와 같이 가족에게서 형성되지 않은 신뢰관계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의심과 불신으로 인해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성인이 된 후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불안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Williams, 1998), Olmsted (1997)는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 특히 친밀한 관계 형성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고 보고하였다. 또한 남녀 알코올중독자 자녀의 배우자가 모두 알코올 의존자로 나타나 알코올중독자가 있는 가정에서 성장하여 비정상적 대인관계에 익숙해져 부모와 같은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결혼 후에도 똑같은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대인관계 유지에 필요한 기술을 알고 있어야 하며 특히 청소년이나 성인 집단에 대해 배우자 선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부모에게서 충족되지 않은 돌봄 및 애정의 욕구 충족을 위해 친구나 타인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가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것으로 인해 자아의 경계가 약화되어 분리의 어려움이 있고 타인에 대한 통제욕구가 있게 된다. Beesley(1998)는 알코올중독자 자녀가 타인에 대한 통제 욕구가 높고 관계 만족이 적다고 하였고 불안정한 애착을 한다고 하였다. Williams(1998)도 알코올중독자가 자녀에게 대해 과보호적이고 통제적이라고 하여 알코올중독자의 자녀가 자신의 자아가 성숙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지지하여 준다고 하겠다.

또한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자신을 상처받는 것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진실된 감정을 부인하게 된다. 이러한 감정 부인과 지나친 타인에 대한 인정욕 구 및 사랑 받고 싶은 욕구, 가족에게서 받은 비인격적 대우로 인해 자신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가지며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된다. Joyce(1998)도 내적 상처로 고통받는 알코올중독 가정의 아이들은 성장기간 을 견디기 위해 내적 상처를 숨기고 외적으로는 가장 된 모습을 지니게 된다고 하여 정체감 형성의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Reiser(1997)도 알코올중독자 자녀가 낮은 자존감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신체적, 언어적 학 대와 이로 인해 나타나는 불안, 우울, 긴장 등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부모에게서 충분한 돌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음으로 인한 외로움과 타인 에의 집착 등 관계 형성의 장애와 알코올중독 아버지와 사는 삶에 익숙하게 됨으로 인해 나타나는 강박적 행위와 관계사고, 의심, 불신 그리고 아버지의 술 마시는 것을 바라게 되는 모순된 기대 등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알코올중 독자의 가정이 항상 병리적인 것은 아니다. Averna(1999)는 모든 알코올중독자 자녀가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며 길로 드러나는 문제도 부모의 알코올중독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Dooley(1996)는 알코올중독자 자녀가 높은 불안, 우울, 낮은 자존감을 경험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알코올중독보다는 가족의 역기능과 관련이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Colina(1997)도 알코올 가정에서 자란 자녀의 주 문제는 통제 욕구인데 알코올 중독의 통제할 수 없는 특성으로 이러한 통제 욕구는 알코올 가정의 문제라기 보다는 역기능 가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결국 가정 내에서 알코올중독이 존재해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자녀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알코올중독 자체 보다는 알코올중독이 영향을 미쳐 가족이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때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개인적인 요인도 작용하는데 Delmonico(1997)는 알코올중독자 자녀가 정서적, 대인관계적, 신체적 증상이 발달되거나 모든 자녀가 그런 것은 아니고 회피대처기전

을 많이 사용하는 자녀에게 우울 정도가 높다고 지적 하였다. 그러나 알코올중독자 자녀일지라도 높은 수준의 사회적지지 자원이 있고 용기가 많고 회피대처기전 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울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용기가 적고 회피 대처 를 많이 하고 부정적 생활 사건을 많이 경험하고 이러한 요소로 인해 우울의 경향이 높아질 수 있으나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알코올중독자 자녀가 우울 증상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알코올 가정 환경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회복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추후 연구가 시도되어야 하겠다. Leahy(1996)도 많은 연구가 주로 알코올중독자 자녀의 정신병리에 대한 것이고 회복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하였으며 또 연구 결과 통제, 사회성, 지배, 자기 수용, 책임감, 성취 응집과 갈등 등의 현재 기능에 대한 차이가 알코올중독자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간의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는데 이 연구 결과 어린 시절의 스트레스의 존재가 반드시 병 리적이 되는 것을 암시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알코올중독자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적 변수를 찾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치료 전략에 이용해야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볼 때 알코올중독자의 자녀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집단이며 이들이 속해 있는 가정이나 사회, 학교 등에서 적절한 중재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알코올중독자 자녀의 삶에 대한 역설적 대처 경험에 대해 알아보는 질적 연구로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기간은 2000년 10월부터 2001년 12월까지였으며 연구대상자는 알코올중독자의 자녀로 16-18세의 청소년 9명이었다. 자료는 수집과 동시에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 알코올중독자 자녀의 삶에 대한 역설적 대처라는 주제에 대해 13개의 의미들로 분류되었다. 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시도로 강박적 행위와 관계사고를 갖는다. 불안과 긴장으로 인한 방어적 삶을 살아간다. 사고의 비약으로 편집적인 삶을 살게 된다. 만성적 긴장상태에 대한 부담으로 아버지가 술먹는 것을 바라는 모순된 기대를 갖게 된다. 평안한 삶을 원하나 이미 긴장된 생활에 익숙하게 되어 자극이 없는 생활에서는 지루함과 무료함을 느끼게 된다. 사실을 재해석해서 맞추어 놓는 가장된 삶을 살아간다. 외로움으로 인해 애정 욕구의 충족이 절박해져 타인에게 집착하게 된다. 또래 집단과의 보상적 삶을 살아간다. 반복되는 부정적 경험이 내재화되어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게 된다. 불완전한 자아를 만회하기 위해 타인을 통제하려 한다. 자신을 상처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부인하고 경계하게 된다.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 원망하는 삶을 살아간다. 부정적 자기 이미지를 보상받기 위해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알코올중독자 자녀가 생존하기 위해 대처를 사용하는 현상의 본질이 규명되어 알코올중독자 자녀의 삶에 대한 이해와 중재적 접근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시했다고 하겠다.

2. 제언

알코올중독자 자녀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적절한 중재 전략을 위해 더 많은 추후 연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알코올중독자 자녀의 회복을 위한 중재적 요소가 규명되어야 한다.
- 2) 사회적으로 알코올중독자 자녀가 중재가 필요한 집단으로 인식되고 알코올중독자 자녀의 실태가 파악되어야 한다.
- 3) 알코올중독자 자녀를 위한 자조집단과 같은 사회적 지지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 4) 알코올중독자 자녀를 위한 중재를 제공하는 전문가 집단이 훈련되어야 한다.
- 5) 알코올중독자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고 가족의 변화의지와 희망을 북돋워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미례, 장환일, 김정빈(1995). 한국어판 알코올중독자 자녀 선별 검사 : 신뢰도와 타당도 개발. *신경정신의학*, 34(4), 1182-1193.
- 남궁기, 이호영, 이만홍, 민성길, 김수영, 송동호, 이은설, Robert Rovers (1989). 강화도 정신과 역학연구(III). *신경정신의학*, 28, 984-999.
- 박재연(1999). 알코올중독자의 자녀를 위한 집단상담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용언(1998). 음주 부모의 초등학교 아동들의 심리적 특성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래(1994). 알코올중독자 자녀들의 부정적 경험과 자존심 및 통제소재에 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정(1998). 알코올 문제가정 성인자녀들의 심리사회적 문제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령(1995). 알콜중독자 자녀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숙(1990). 알콜중독자와 그 자녀의 성격유사도 및 자녀의 스트레스 정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수미(1992). 알콜중독자 자녀의 자존감 고취를 위한 단기 집단치료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 최승희(1997). 알코올중독자 자녀들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 연구. 서울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verna, S.J.(1999). Resiliency Among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Understanding Individual Differences. Doctoral Dissertation, Boston College.
- Beesley, D.(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Need for Control, Attachment Style,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Among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Oklahoma.
- Cermak(1986). Diagnostic Criteria for Codependency. *Journal of Psychoactive*

- Drugs, 18(1), 15-20.
- Colina, T.L.(1997).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and Their Purported Need for Interpersonal Control.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incinnati.
- Colaizzi, P.F.(1978).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Deckmon, J., & Down, B.(1982). A Group Treatment Approach for Adolescents Children of Alcoholic Parents. Social Groupwork and Alcoholism, The Haworth Press.
- Delmonico, L.J.(1997). Stressful Life Events and Resiliency : Coping Responses, Social Support Resources, Hardiness, and Perceived Childhood Family Relationships in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sychology, San Diego.
- Dooley, S.Y.(1996). A Comparison of Adult Children of Alcoholic Families With Adult Children From Non-alcoholic Families: A Replicat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Texas.
- Haines, D.A.(1998). Sons of Alcoholic Fathers : Psychological and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Doctoral Dissertation, San Hose State University.
- Jones, J.W.(1981).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 Chicago : Family.
- Joyce, P.(1998). The Internal Scar Versus the External Facade. The Union Institute.
- Leahy, M.Z.(1996). An Investigation of the Influences of Early Experiences and Family Environment on Resilience in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and Adult Children of Non-Alcoholics. The Union Institute.
- Melcher, R.L.(1997). Coping and Resiliency of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Doctoral Dissertation, Marquette University.
- Olmsted, M.E.(1997). "If You Don't Become One, You'll Marry One": Close Relationship of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Doctoral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 Reiser, D.M.(1997). Denial, Drinking Behavior, and Emotional Symptomatology in Daughters of Alcoholics. Doctoral Dissertation, Colorado State University.
- Star, A.(1989). Recovery for the Alcoholic Family : Family Systems Treatment Model. Social Casework, June.
- Whitfield, C.L.(1989). Co-Dependence : Our Most Common Addiction - Some Physical, Mental, Emotional and Spiritual Perspectives. Alcoholism Treatment Quarterly, 6, 19-35.
- Williams, G.P.(1998).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Parental Bonding, Adult Attachment, and Spirituality.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Institute of Integral Studies.

ABSTRACT

The Paradoxical Coping in Life of Children of Alcoholics

Kim, Myung Ah(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Pochon CHA University)

A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was used to identify the life of children living with alcoholic parents. Nine adolescents participated in the in-depth interviews, done between October and December 2001. The Colaizzi's method was us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One theme and thirteen meanings were identified. The one theme is Paradoxical Coping in Life. The meanings are obsessive behavior as a way to control father's behavior, always on the defensive due to anxiety and tension, being afraid of life alone due to paranoid thoughts, contradictory expectations about father's drinking behavior due to life with chronic tension, stress becoming familiar and life being boring and tedious without stimulation, life that is fake and filled with misinterpretations about reality, affection sought from others due to loneliness, compensatory life within peer group, negative expectation about the future due to negative experiences, controlling others to protect ego, denial of real emotion to protect self from hurt, life of regretting self, and strong need for approval from oth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provide a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programs for children of alcohol dependent parents.

Key words : Children of alcoholics, Phenomenological methodology